

미국 수도 파룬궁 수련생, '4·25' 평화 상방 기념

[명혜망] 2019년 4월 14일, 미국 워싱턴 지역의 일부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공 대사관 앞에서 단체 연공과 집회를 펼치며 파룬궁 수련생의 '4·25' 평화 상방 20주년을 기념했다.

워싱턴 D.C. 파룬파파(파룬궁)학회 대변인 거민(葛敏)이 말했다. “중공 집권 통치하에 파룬궁 수련생들이 ‘진(真), 선(善), 인(忍)’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펼쳐 보인 ‘4·25’ 평화 상방은 영원히 변치 않는 도덕의 기념비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4·25’ 평화 상방은 역사가 중공에게 선을 선택할 하나의 기회를 준 것이었지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은 ‘진, 선, 인’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을 박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25’ 평화 상방을 직접 겪은 목격자인 거민은 다시 말했다. “파룬궁 수련생은 20년 전인 ‘4·25’ 그 날, 세계를 향해 용기와 내면의 평화를 말없이 펼쳐보였고, 이어진 가장 잔인한 폭력 탄압을 극복한 후,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이 십악독세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해 광명과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미국 파룬궁 수련생들이 '4·25' 평화 상방 2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거민은 집회에서 란토스 인권 재단의 전 최고책임자 아닛 틸먼-딕의 말을 인용해 말했다. “파룬궁은 가장 사악한 박해를 감당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청년이 중공의 유령 본질을 깨닫고 즉시 탈당에 동의하다

[대륙 투고] 갈수록 많은 중국 민중이 중공(중공과 중국은 다르다)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고 '3퇴(국외 탈당 사이트에서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법원 직원의 후회

[선전 투고] 한번은 내가 소구역에서 길을 건너는 한 남자를 발견했는데, ‘한 치도 걷기 어렵다’는 말이 단지 형용사가 아님을 정말로 보게 되었다. 그는 두 다리가 옆으로 틀어져 정말 한 치씩 움직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목이 불편한지를 물었다. 그는 뇌경색에 걸렸다고 말했다. 나는 “파룬파파 하오(法輪大法好), 찌썬런 하오(真善忍好)”를 정성껏 외우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몇 마디를 했고, 쓰촨 사투리가 몹시 심해 내가 알아듣지 못하자 다시 말했다. “나는 파룬궁을 족쳤어요(박해했어요).”

내가 어디에서 일했느냐고 물으니 그는 청두(成都) 법원에 있었다고 말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은 틀림없이 파룬궁을 포함하는 중공의 거짓말을 믿고 좋은 사람을 박해하다 자신이 말려들었네요.” 그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저는 응보를 받았어요!” 그는 모자를 벗고 말했다. “나는 머리에 칼을 세 번 댔어요.”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 사람은 나이가 한창이었는데, 일부 파룬궁 진상을 들어 알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파룬궁을 박해하다가 결국 50세가 넘어 어쩔 수 없이 퇴직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파룬궁이 불법(佛法) 수련이고, 사람들에게 선을 향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며, 현재 세계 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다고 말해주었다. 또 불법에는 자비와 위엄이 동시에 존재하며, 파룬궁을 포함하는 중공의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등등의 진상을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신강(靳康)이라는 가명을 지어 중공의 당, 단, 대 탈퇴를 권하자 그는 시원스럽게 승낙했다. 내가 그에게 파룬궁 진상이 들어있는 메모리 카드를 주자 그는 기뻐하며 받았다.

청년이 중공의 유령 본질을 깨닫고 즉시 탈당에 동의하다

[대륙 투고] 나는 직장인인데, 어느 날 해질 무렵에 도로 중앙의 화단을 지나가다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30세 가량의 청년을 만났

다. 내가 웃으며 그에게 물었다. “동생, 인터넷 해요?” 그가 “예”하고 한 마디로 대답했다. 내가 말했다. “좀 쉬어야 할 텐데, 나도 한번 봐주세요!” 그는 씩스럽게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내가 물었다. “뉴스를 보고 있었네요!” 그는 뉴스를 보지 않았으며, 현재의 뉴스는 읽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말했다. “맞아요. 중공은 전문적으로 진상을 봉쇄하고 가상을 만들어요. 지금 중국에서 사실을 알기는 아주 어려워요.” 이어서 나는 그에게 중공이 원래 외국의 조직으로, 소련의 조종과 지지 하에 국민 정부를 전복시켰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중화민족 5천 년의 문화를 필사적으로 파괴하고, 중국 인민을 적으로 삼는다면, 그가 집권한 이후 평화 시기에 우리 8천만 중국 동포를 해쳤다고 말했다. 특히 ‘진, 선, 인’을 신봉하는 선량한 파룬궁 민중을 20년 동안 잔인하게 박해하면서 중화 대지의 도덕을 붕괴시켜 멸망의 징조가 떠올라 나타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나는 또 그에게 ‘3퇴’ 보평안을 이야기한 다음, 그에게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권했다. 그는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학 졸업 전에 입당했다며, 좋은 자리에 배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가 말했다.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는 아주 엄숙한 일이에요. 동생이 가입한 중공에 대해 알아요?” 그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걸 모르면서 중공에 가입할 때 그걸 위해 생명을 바치고, 일체를 바치겠다는 맹세를 했는데, 이런 너무 경솔한 것 아닐까요?” 그가 말했다. “그럼, 당신은 그게 뭐라고 알고 있나요?” 내가 말했다. “그건 사실 하나의 유령이고, 바로 민간에서 말하는 망령이에요.”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동생은 마르크스가 공산당을 창립했다는 건 알죠? 그럼 휴대폰으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찾아서 첫 구절이 뭔지 보세요.” 젊은이가 즉시 <공산당 선언>을 검색하니 첫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다.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의 유령이 유럽에서 빈둥거리고 있다.” 그는 놀라워하며 나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중공이) 정말 유령이네요. 그럼 (당, 단, 대를) 탈퇴할게요.” 이어서 내가 파룬궁의 진상을 이야기하자 그는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

20년 전 '4·25' 만 인 평화 상방의 진상

어떤 사람은 1999년 4월 25일의 만 인 평화 상방이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부른 원인이라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중공은 1996년 <광명일보>의 여론공격을 시작으로 사전 모의에 따라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실시했다.

1996년 파룬궁 서적 출판금지를 시작했으며, 중공의 장쩌민, 뤼간 패거리의 파룬궁에 우호적이었던 국무원 총리 주룽지의 서면지시를 압수했다.

1998년 7월부터公安부는 내부적으로 파룬궁을 'X교'로 규정하고, 도처에 특무를 파견해 '죄증'을 수집했으나 소득이 없자 또 다시 공안을 동원해 연공하는 군중을 강제 해산시키고, 불법으로 재산을 몰수하는 등 3년 동안 끊임없이 탄압의 수위를 높였다. 마침내 경찰이 불법으로 파룬궁 수련자를 구타하고 체포한 '텐진사건'을 일으켜 파룬궁 수련생 만 명을 '4·25' 평화 상방에 나서게 했다.

텐진사건

1999년 4월 11일, 중공 두목 뤼간의 동서인 허쥔슈가 텐진교육대학 잡지에 파룬궁을 공격하는 문장을 신자, 일부 파룬궁 수련생이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텐진교육대학과 관련 기관에 실제 상황을 알렸다. 23일과 24일, 텐진시 공안국이 진압경찰을 동원해 파룬궁 수련생을 구타하고 불법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련생들이 피를 흘리고 부상을 입었으며, 45명이 체포됐다. 텐진시 정부는 베이징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면서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공안부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고, 베이징에 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상방 경위

4월 25일, 파룬궁 수련생들은 정부에 대한 믿음을 품고 법에 따라 국무원 신방사무실을 찾아가 평화롭게 상방을 하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① 불법으로 체포된 텐진 파룬궁 수련생 석방. ② 많은 파룬궁 군중을 위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련 환경 제공. ③ 파룬궁 서적의 합법적인 출판 허용.

당시 총리 주룽지는 수련생 대표와 면담한 후 아주 빨리 텐진 공안국에 명령을 내려 불법으로 체포된 파룬궁 수련생을 석방하게 했고, 국가가 군중의 연공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재확인했다.

저녁 8시가 넘어 텐진 쪽에서 체포된 파룬궁 수련생이 석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상방을 하던 수련생들도 조용히 해산했다. 상방과정 전체가 질서정연했으며, 파룬궁 수련생은 떠날 때 땅 위에 종잇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경찰이 버린 담배꽂이까지



위 사진은 1999년 4월 25일 상방 현장을 찍은 것이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조용히 서있거나 책을 보고 있고, 경찰은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옆에서 잠담을 하고 있다. 파룬궁 수련생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곳이 바로 중난하이의 붉은 담장이다. 파룬궁 수련생은 중난하이를 '포위'하지 않았고, 나아가 이른바 '충격'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른바 '중난하이 포위 공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4·25' 사건은 중공 정권수립 이후 정부와 일반 시민 사이에 평화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를 남겨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국제 언론은 "중국 상방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이성적이고 평화로운 상방"이라며 이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일체는 오히려 장쩌민을 극도의 질투와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 '6·4' 학생의 선혈을 밟고 무대에 오른 장쩌민은 중공의 '계급투쟁'이라는 변이된 사유로 문제를 보는 데 습관이 들어있었고, 파룬궁 수련생의 평화 상방이 정부에 대한 신뢰임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당에 대한 '시위'라고 주장했다. 그날 밤 장쩌민은 평화 상방을 '중난하이 포위공격'이라며 혈통었다. 그리고 1999년 7월 20일, 독단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를 개시했다.

상방은 '정치행위'가 아니다

역대 운동 중에서 중공은 누군가를 타격하려 할 때 먼저 그에게 몇 개의 '모자'를 씌웠다.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려 하지만, 날조된 몇 가지 죄명도 없다면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파룬궁 수련생이 '4·25' 평화 상방으로 지키려 한 것은 '진, 선, 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기본 권리였으며, 이것은 정권을 뺏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중공의 주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 원인,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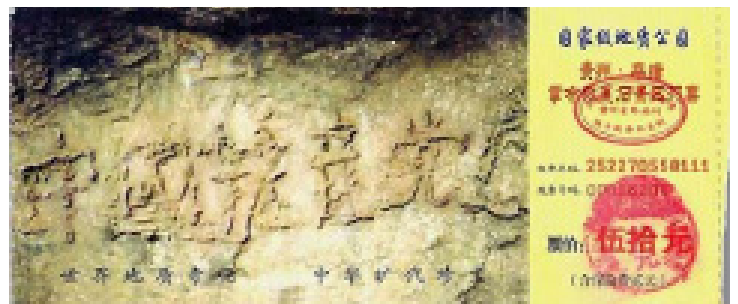
박해 발생 7년 후에 출판된 <장쩌민 문선>에는 중공이 박해를 발동한 진정한 이유가 폭로되어 있다. 장쩌민은 1999년 4월 25일 저녁, 정치국에 보낸 서신에서 파룬궁의 신속한 발전과 민심 응집력에 대해 솔직하게 우

쟁탈한다며 파룬궁과 '싸워 이기겠다'고 주장했다.

파룬궁은 불가 수련공법의 일종으로 누구와 민심을 쟁탈할 뜻이 없고 누구와 싸워 이길 생각도 없다. 그러나 현재 도덕이 사라지고, 당의 관리들이 부패하고 음란한 사회 속에서 '진, 선, 인'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파룬궁은 한 줄기 맑은 샘물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트이게 한다. '인심이 선을 향하는 것'은 본성이 지향하는 바이며, 이것이 아마 이른바 '응집력'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박해의 발단과 '4·25' 평화 상방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최종 원인을 명백히 말하자면 '연공인이 너무 많다'는 것 뿐 아니라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진, 선, 인'을 실천해 일체의 바르지 못한 것이 모두 폭로되자 거짓말과 폭력에 의존하는 중공 정권이 안철부절 못하다가 무대 앞으로 뛰어나와 대판 싸움을 벌인 것이다.

지금의 중국사회는 혼란하기 그지없고, 위기가 사방에 잠복해 있다. 결국 바로 중공의 포악하고 부패한 '가(假), 악(惡), 투(斗)' 통치로 인한 도덕의 상실 때문이다. '진, 선, 인'에 따라 마음을 닦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대한 파룬궁 군중은 중국 사회도덕의 기초이며 사회도덕 회복의 희망이며, 미래 중국의 희망이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